

[바둑]

허영호-윤준상 "내가 신예 최강자"

12일부터 'SK가스배 신예프로 10결전' 결승 격돌

내년부터 제한규정 묶여 출전 못해...대미 장식 야망

"우승으로 신예기전 마지막 도전무대를 장식하겠다."
내년부터 단위(段位) 출전제한 규정에 묶여 SK가스배 신예프로 10결전에 출전할 수 없는 허영호 6단과 윤준상 6단이 마지막 무대에서 하나 뿐인 패권을 놓고 격돌한다.

를 재대국에서도 승리를 거두고 최종 결승에 올랐다.
공교롭게도 이번 대회는 허영호 6단과 윤준상 6단에게 신예기전에서 우승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본격 기전 우승자의 출전 제한, 25세를 넘긴 기사, 5단 이상의 기사는 출전할 수 없다는 대회 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허영호 6단>

특히 윤준상 6단에게 SK가스배는 남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그는 9, 10기 대회 등을 재대국에서 패해 결승 진출이 좌절된 바 있다.
지난해 제16기 비씨카드배 신인왕전에서 원성진 7단을 꺾고 우승한 허영호 6단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신예 최강자의 입지를 굳힌다는 각오여서 만만치 않은 승부가 예상된다.

SK가스배 신예프로10결전의 결승전은 오는 12.14,16일 3일 동안 열린다. 우승상금은 1천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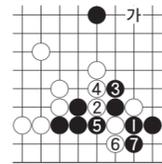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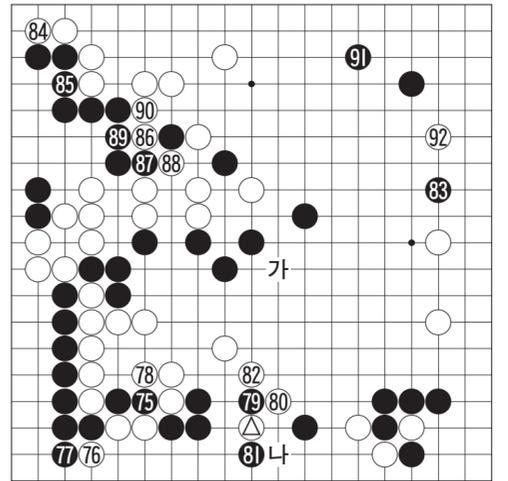
자만의 한수

6보(75~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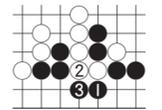
최강부 결승전

白 심재욱 6단

黑 선계성 6단



<참고도 1>



<참고도 2>

앞보에서 선계성 6단의 의문수로 인해 심재욱 6단의 기세가 완연히 살아나고 있다.
백 86로 붙여 두텁게 흑 한점을 잡아왔는데 두텁기는 하지만 먼저 91로 걸쳐가고 싶다.

이 기전은 일본의 불교 바둑팀인 아함종관의 기리야마 야스오가 제안해 지난 1999년 창설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중 류싱 7단-공지에 7단 '아함종산배' 정패

중국의 류싱 7단과 공지에 7단이 제9회 '아함종산배' 패권을 다툰다.
류싱 7단과 공지에 7단은 지난달 말 열린 이 대회 준결승전에서 각각 구리 9단, 황이중 6단과 결승 진출을 다툰다.

이 대회 우승자는 내년 1월 일본 아함종산배 우승자인 장쉬 9단과 중국 사면에서 최종 패권을 다툰다.

류싱 7단은 후야오위 8단, 왕웨이 8단, 리저 6단, 공지에 7단, 구리 9단 등 강호를 차례로 연파하고 결승무대

에 올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한·중·일·대만 '젊은 피' 한판승부

국제신예대항전 4~8일 강원도 강릉서 열려
작년 중국에 덜미 한국팀, 정상 재탈환 나서

한·중·일·대만의 젊은 피들이 자율을 겨룬다.
아시아 각국 바둑계를 대표하는 젊은 기사들이 격돌하는 국제신예대항전이 4~8일 강릉시 현대호텔에서 열린다.

이영구, 강동운, 백홍석, 김지석, 한상훈, 박승화, 진시영, 최기훈 등 8명이 출전한다.
이번 대회도 여는 세계대회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중국의 2파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세 전후의 젊은 기사들의 출전하는 이번 대회는 미래 세계 바둑판도를 가능케할 수 있는 기전.

그러나 중국은 지난해 한국을 6-2로 누르고 3전 전승으로 정상을 차지

하는 등 한국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 대표로는 쑹제, 리저, 저우루이양, 천야오에, 구링이 등 차세대 리더들이 대거 출전한다.

경기 방식은 4개팀의 리그전이며, 각팀 멤버 8명은 다른 3개팀 같은 순위를 상대로 1인당 3국씩을 소화하게 된다.

1인당 2시간 30분에 1분 5회 초읽기가 주어진다. 우승상금은 500만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GS칼텍스배·LG배·삼성화재배·농심신라면배...

'11월은 바둑의 계절'

바둑 팬들이 손꼽는 골짜기 한국이 11월에 집중적으로 열린다.
11월 초반 스타트는 GS칼텍스배가 쏜다.
국내 랭킹 2위인 이세돌 9단과 3위인 박영훈 9단의 승부로 압축되는 이 대회는 3일부터 중국 칭다오에서 도전 5봉기를 시작한다.

다. 3년 연속 우승 문턱에서 주저앉은 한국바둑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이세돌 9단, 박정상 9단, 온소진 3단, 한상훈 초단이 출격한다.
이세돌 9단-장쉬 9단, 박정상 9단-후야오위 8단, 온소진 3단-고노리 9단, 한상훈 초단-류싱 8단이 각각 격돌한다.
열 두 번째 삼성화재배 우승컵의 주인을 가리는 준결승전 3번기

는 20, 22, 23일에 펼쳐진다.이세돌 9단, 박영훈 9단이 각각 중국의 구리 9단, 황이중 6단과 결승 진출을 다툰다.
부산에서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제9회 농심신라면배가 열린다.
중국의 4장으로 출전해 2연승한 왕시 9단과 한국의 4장이 격돌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조훈현 9단이 지난달 30일 강원 정선 강원랜드 호텔 대연회장서 열린 제35기 강원랜드배 명인전 결승3국 특별행사로 열린 '오목명인전'에서 강원랜드 고객과 환관 승부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시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무등공인중개사
● 건물
● 토지 (상부지구)
● 모델, 호텔매매
● 공업, 임대(농장), 참고 및 기타
● 주유소 및 목욕탕 부지

금보부동산컨설팅
토지매매
건물매매
전문가능사업부지
우망일야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A+ 시정효율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자선컨설팅명가
평주-전남경 토지-건물 구합
Tel: 062)973-9174, 016-757-8800

한일지도판매(주)
2007 최신 합본(중주,주,호,순,정,당,당,행)
지번도 책 판매중
이번에 제작한 합본책은?

부자되세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김갑룡
1. 광제빌딩상가 임대(신축)
2. 서구 상충동 원룸 매매
3. 서구 풍암동 신축 원룸매매
4. 아파트 빌라 매매
5. 원룸매매(서구 풍암동)
6. 경공매 매수신청대리